

거시경제의 동향 및 전망¹⁾

김성태(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)

요약 및 평가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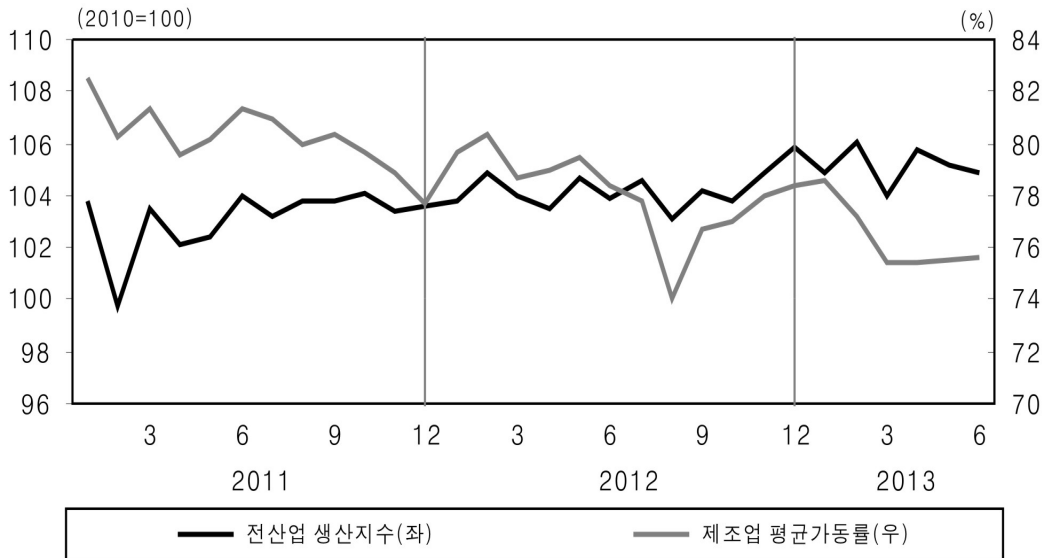
- ◎ 최근 일부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는 하나,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됨
 - 생산자제품 출하의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고, 경기선행지수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일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음
 - ※ 아울러 취업자가 30만 명 내외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, 임금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자심리도 급년 들어 개선되고 있어 향후 내수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
 - ※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국내외 금융시장이 7월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임
 - 그러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수출도 낮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
 - ※ 세계경제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수출이 완만한 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
 - ※ 2/4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전기대비 1.1%를 기록하였으나, 이는 정부소비가 상당부분 기여한 결과로서 추세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1) 이 글은 「KDI 8월 경제동향」을 발췌 요약한 것임.

2)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모든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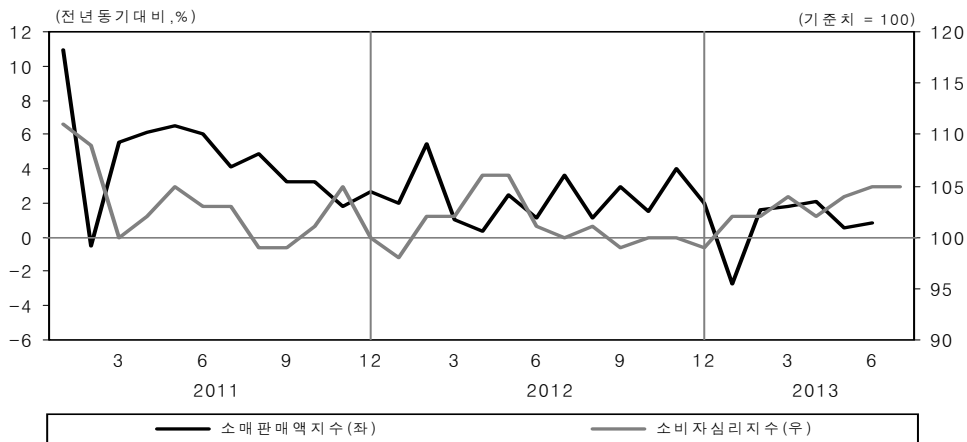
- ◎ 경기: 6월 중 생산자제품 출하와 경기종합지수가 소폭 개선되었으나, 전반적인 생산 확대는 지체되는 모습
 - 6월 중 생산자제품 출하는 석유정제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내수 및 수출 출하가 모두 소폭 개선되면서 전월대비 1.1%의 증가율을 기록
 -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여전히 기준(100)을 하회하고 있으나,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최근의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100.4를 기록
 - 그러나 출하 증가가 현재까지는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
 - ※ 6월 중 출하 증가의 영향으로 재고율(재고/출하)이 전월(115.6)보다 하락한 112.7을 기록하였으나, 여전히 재고부담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
 - ※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0.4%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및 공공행정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.3% 감소
 - ※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전월(75.5%)과 유사한 75.6%를 기록하며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

[그림 1] 전산업 생산지수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



- ◎ 소비 : 소비 관련 심리지표가 수개월간 개선되고 있으나, 아직 소매판매 증가로 연결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
 -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05를 기록하여 금년 1월 이후의 개선 추세를 유지
 - 6월 중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대비 0.9% 증가하기는 하였으나, 전년동월대비로는 0.8%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함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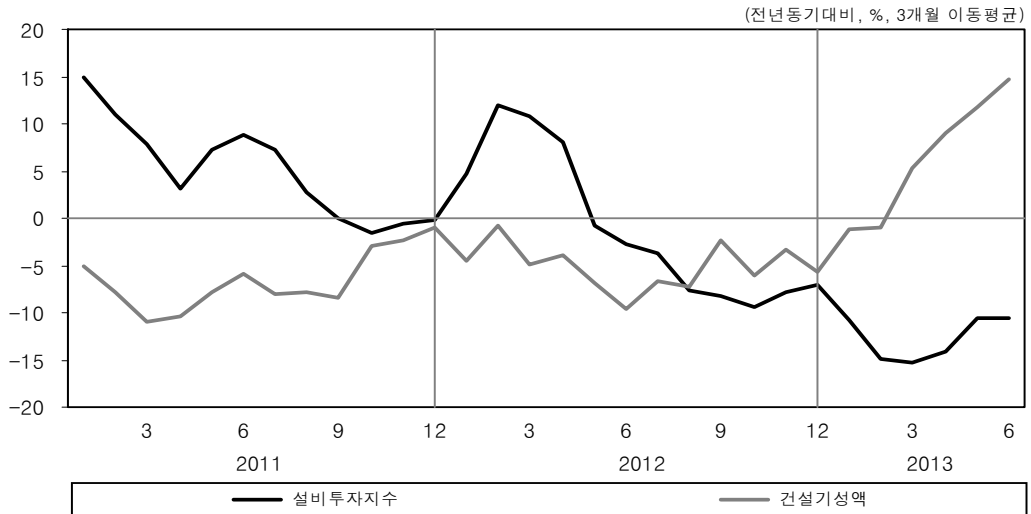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



- ◎ 투자 : 설비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최근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
 - 6월 중 설비투자지수가 -7.8%를 기록하여 전월(-11.9%)보다 감소폭이 축소된 가운데 전월대비로도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
 - ※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전월(16.3%)과 유사한 14.5%의 증가율을 기록
 - 6월 중 건설기성이 최근의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건설수주가 부진을 지속함에 따라 향후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
 - ※ 건설기성(불변)은 건축부문의 기저효과와 토목공사의 호조 등으로 전월(12.6%)과 유사한 12.8%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

※ 반면, 건설수주가 토목부문의 수주 부진에 주로 기인하여 41.0% 감소함에 따라 향후 건설경기의 견조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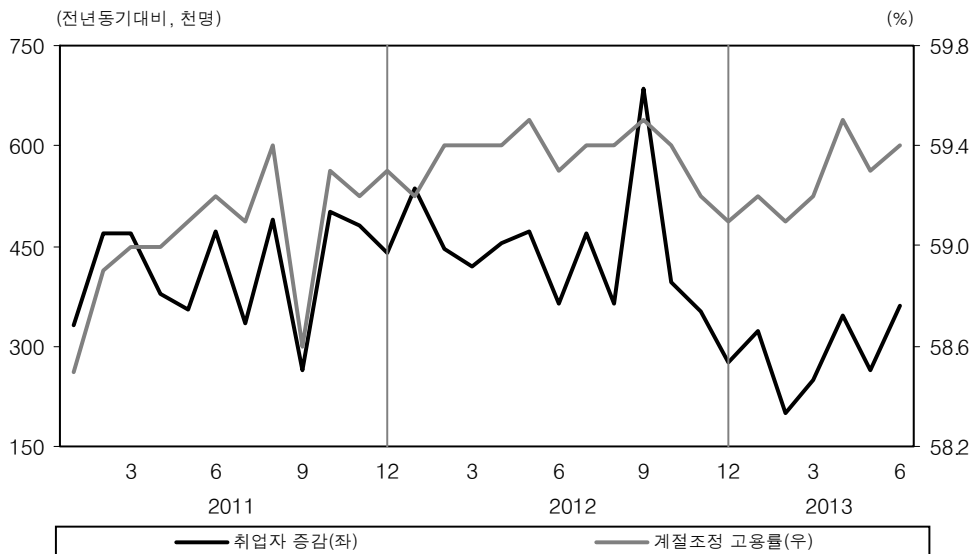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설비투자지수 및 건설기성액



- 수출 : 수출은 최근의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개선추세가 비교적 완만한 모습
 - 7월 중 수출은 전월(-1.0%)의 감소에서 2.6%의 증가로 전환되었으나, 이는 주로 기저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수입은 주요 에너지 자원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여 2.7%의 증가율을 기록
 - 무역수지는 전월에 비해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,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흑자폭이 전월(59.9억 달러)보다 크게 축소된 27.1억 달러를 기록
 - 6월 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 주로 기인하여 큰 폭의 흑자(72.4억 달러)를 기록
 - ※ 상품수지는 흑자 규모가 전월(72.7억 달러)보다 축소된 50.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
 - ※ 서비스수지는 전월과 유사한 11.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본원소득수지는 전월(1.9억 달러)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9.6억 달러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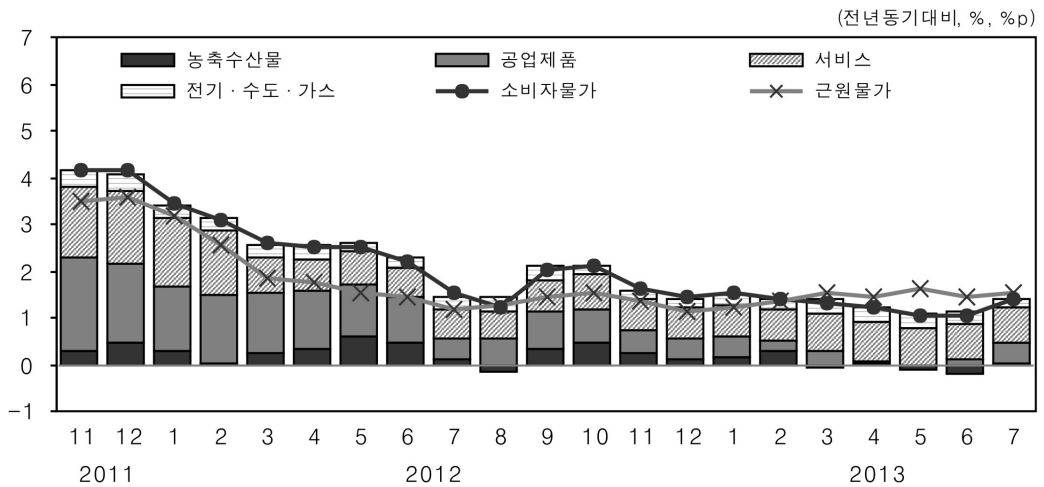
- ◎ 노동시장 :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60%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는 모습
 - 6월 중 취업자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(26만 5천 명)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36만 1천 명(1.4%)이 증가
 - ※ 산업별로는 서비스업(26만 3천 명, 1.5%)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, 건설업(3천 명, 0.2%)은 증가로 전환
 - ※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(49만 7천 명, 2.8%)의 취업자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반면, 자영업자(-10만 4천 명, -1.8%)의 감소세는 지속
 - 계절조정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각각 61.4% 및 59.4%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실업률도 낮은 수준(3.2%)을 지속
 - ※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모두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15~29세 청년층의 감소세는 소폭 완화
 - 한편, 5월 중 상용근로자(5인 이상 사업체)의 월평균 명목 및 실질임금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4.9% 및 3.9%를 기록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지속

[그림 4] 취업자 증감 및 고용률



- 물가: 7월 중 소비자물가는 주로 공급요인에 기인하여 전월(1.0%)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, 여전히 낮은 1.4%의 상승률을 기록
 -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전월(0.5%)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된 1.6%의 상승률을 기록
 - 반면, 공급요인에 비교적 덜 민감한 서비스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월과 유사한 1%대 초중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

[그림 5] 소비자물가 추이 및 부문별 기여도



주: 부문별 기여도의 합은 반올림으로 총지수의 증감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- 금융시장: 7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 및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점차 안정되는 모습
 -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전월보다 50.7p 상승한 1,914.0을 기록하였으며, 원/달러 환율은 36.1원 하락한 1,113.6원을 기록
 -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전월(17.11)에 비해 하락한 16.26을 기록하며 국내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되는 모습
 - 금리는 경기 개선 기대와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소폭 상승
 - ※ 국고채 수익률은 양적완화정책 축소 우려가 완화되었으나, 월말 들어 시장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 및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전월(2.8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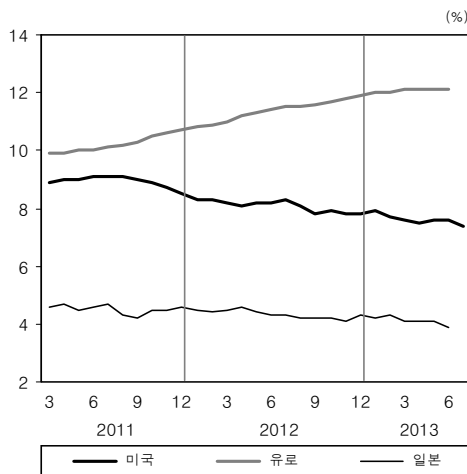
보다 소폭 상승한 2.92%를 기록

※ AA- 및 BBB- 회사채 수익률도 각각 3.36% 및 9.04%를 기록하며 전월(3.31%, 8.94%)보다 상승

◎ 세계경제 :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으나,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-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유로존의 실물경기 부진은 지속되는 모습

[그림 6]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



[그림 7]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



- 신흥시장국은 대외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

[그림 8] 주요 신흥시장국의 소매판매



[그림 9] 주요 신흥시장국의 수출

